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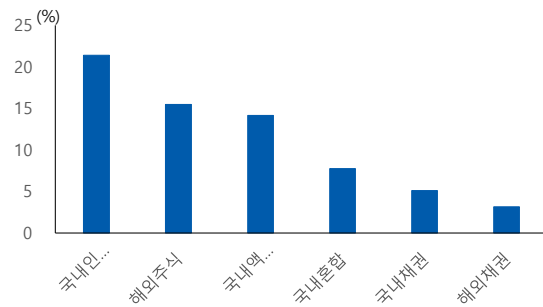


살아나는 2023년 펀드시장

1. 2023년 주식과 채권 성과 우수

- 2022년 매우 부진했던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의 성과는 2023년 회복되는 분위기였음.
- 국내주식펀드는 2차전지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연초 이후 수익률로는 관련 펀드의 성과가 상위권 차지
- 해외주식펀드 중에서는 미국 기술주의 강세로 복미펀드와 IT펀드 성과 우수. 반면, 중국펀드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우 저조한 성과 시현.

2023년 주식펀드와 채권펀드 성과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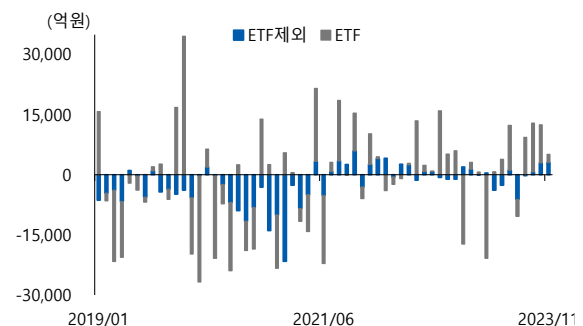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4개월째 순유입되는 국내주식펀드

- 국내주식펀드는 하반기부터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반도체ETF가 관심을 받고 있음.
- 2020-2021년 투자가 많이 늘었던 해외주식펀드는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때 이익실현이 늘어나는 패턴이 나타남.
- 내년에도 IT를 중심으로 한 테마펀드의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국내주식펀드, 4개월째 자금 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2023년 주식펀드와 채권펀드 성과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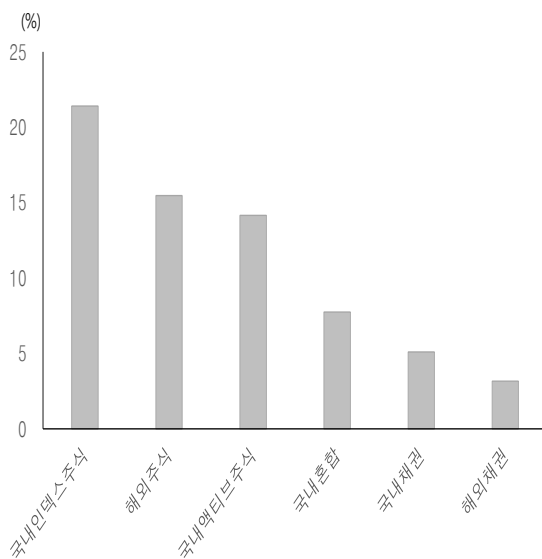
2022년 고강도 긴축으로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의 수익률은 동반 부진하였다. 2023년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에 가까워졌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양호한 편이다.

국내주식펀드는 2차전지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연초 이후 수익률로는 관련 펀드의 성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테마 펀드의 비중이 높은 인덱스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액티브펀드보다 높았다.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채권펀드와 해외채권펀드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각각 5.1%와 3.2%를 기록하였다. 다만, 2022년 하락폭이 컸던 해외채권펀드의 2년과 3년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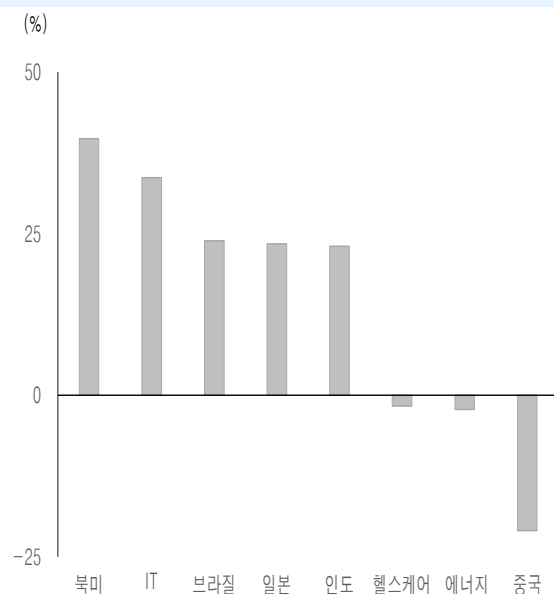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 주요 유형 중에서는 북미와 IT 유형의 성과가 가장 우수했고, 그 뒤를 브라질과 일본·인도가 뒤따르고 있다. 미중 분쟁과 저성장 등의 리스크가 있는 중국주식펀드는 연초 이후 -21.0%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차트1] 2023년 주식펀드와 채권펀드 성과 우수(연초이후 수익률)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북미와 IT ↑, 중국 ↓ (연초이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살아나는 투자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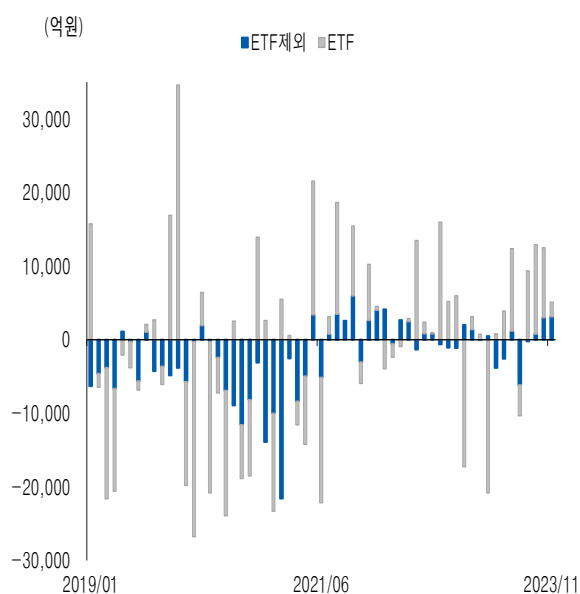
국내주식펀드는 하반기부터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에는 2차전지펀드, 하반기에는 레버리지ETF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최근 1달간은 반도체 관련 ETF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주식ETF가 투자자들이 선택을 받으면서, ETF를 제외한 국내주식펀드로도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배당주·액티브ETF·IT펀드·연금 펀드 등이 2023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펀드이다.

국내주식 액티브 펀드 중에서는 VIP, 터제이, 디에스 등 일임이나 사모펀드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던 운용사의 펀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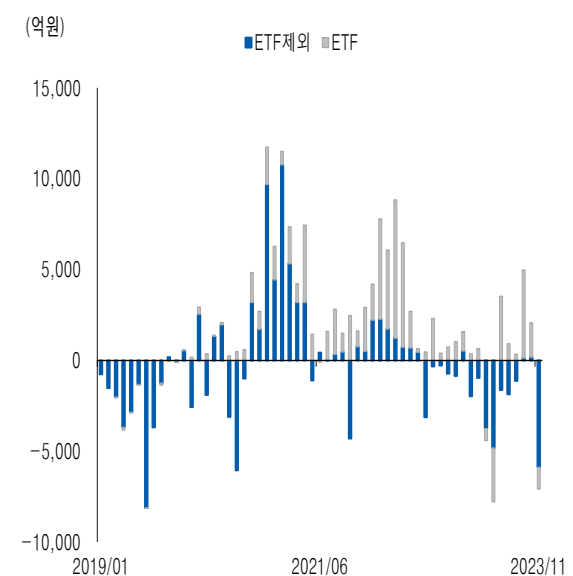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는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펀드에서 이익실현이 늘어나고 있다. 2020-2021년 미국 기술주 관련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트3] 국내주식펀드 4개월째 자금 유입 이어짐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해외주식펀드 이익실현 증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2023년 성과 우수 펀드

연초 이후 성과가 우수했던 국내주식펀드와 해외주식펀드를 살펴보았다. 국내주식펀드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으로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그 뒤를 2차전지와 반도체 등의 테마 펀드가 뒤를 이었다.

미국 기술주의 상승으로 반도체레버리지, 나스닥레버리지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 뒤를 FANG, TechTop10, 반도체 등 미국 기술주 관련 펀드가 따르고 있다.

업종별, 국가별 수익률 차별화 정도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도 테마와 섹터 중심으로 이동했다. 전통적으로 테마 투자 비중이 크지 않았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테마펀드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IT 중심의 테마 펀드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이 간접투자상품에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가다 보면, 펀드 투자도 투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차트5] 연초이후 주식형펀드 성과 우수 펀드

구분	펀드명	순자산	수익률		
			연초이후	1년	2년
국내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11,283	71.3	50.0	-34.9
	KBKSTAR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2,950	66.2	53.6	7.5
	미래에셋TIGER2차전지테마	12,922	60.6	45.2	16.2
	삼성코스닥150 1.5배레버리지	1,138	59.1	44.5	-17.2
	타임폴리오TIMEFOLIO탄소중립액티브	78	58.6	51.2	33.2
	미래에셋TIGERFn반도체TOP10	5,384	58.3	46.6	7.1
	미래에셋TIGER반도체	2,403	56.1	43.5	-4.7
해외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809	129.4	70.4	
	미래에셋TIGER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	416	129.0	79.8	
	삼성KODEX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	1,847	108.2	74.1	-20.8
	삼성KODEX 미국FANG플러스	4,532	87.1	64.3	2.3
	미래에셋TIGER미국테크TOP10	16,560	87.1	63.5	13.8
	한국투자ACE글로벌반도체TOP4PlusSOLACTIVE	1,142	78.8	54.6	
	삼성KODEX미국반도체MV	1,143	71.4	49.9	20.8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2월 12영업일 기준, 코스닥150레버리지는 가장 규모가 큰 펀드만 표시